

영적 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Influence the Attitude of Death of the Old Ages for Afterlife View and Death Prepar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김혜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e Suk Kim(khs647@daum.net)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영적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죽음불안을 경감시키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안녕감과 죽음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p < .001$) 차이가 나타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P < .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순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내세관은 다른 두변수가 영향을 미칠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포함 후 죽음준비도, 내세관,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차이에서만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 준비도, 영적 안녕감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분으로서 죽음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중심어 : | 영적 안녕감 | 죽음준비도 | 내세관 | 죽음에 대한 태도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year to prepare for death, and attitudes afterlife view.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 a correct attitude toward the death to develop the practical skills and interventions to alleviate death anxiety, to live the life of a satisfactory old ag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sense of spiritual well prepared even death afterlife view and the analysis of the impact on attitudes toward death significantly ($P < .001$) showed that differences appeared unaffected. Second, afterlife view death readiness and spiritual wellbeing i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mpact of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death ($P < .001$) in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lationship in 99.9% confidence level It appeared. That death is also ready, exerts an influence on the sense of spiritual well the attitude of the order of death, afterlife view appeared as a variable tha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ed if the other two variables influence. Third, after the death that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readiness, afterlife view and spiritual wellbeing is having an economic level differences only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p < .05$)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ttitudes to death It appeared. So that the death readiness, spiritual well influenced to relieve the sense of death anxiety as a part of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t was identified in this study. Thus the meaning of the present study is meant I was able to verify that it can solve the anxiety about the death positively.

■ keyword : | Afterlife View | Death Preparation | Spiritual Well-being | Attitude on Death |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5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30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30일

교신저자 : 김혜숙, e-mail : khs647@daum.ne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노인문제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중 하나이며, 노인들이 갖는 불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영적안녕감과 실제적 안정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탈종교적 차원에서 삶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초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1].

평생 동안 ‘생명’을 주제로 연구했던 생태학자 최재천(2005)은 생명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뜻밖에도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며, 태어난 모든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한계성”을 설명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죽음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임을 알면서 그에 대해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3]. 미리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죽음의 태도와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4].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5][6].

Thomson(2002)의 Gerotranscendence이론에 의하면, 영성의 초월적 관점이 노인의 노화과정의 변화에 대해 사고하게 하고 인생 후기의 지혜와 삶의 만족으로 이끌고, 신체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관여하게 한다고 한다.

한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다르게 인식된다. 죽음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 불안을 극복하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 현재의 삶의 의미를 더 충실하고 긍정적으로 추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8].

노년기에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심은 생활에서의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의 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대면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9].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년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무위,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 노화로 인한 질병,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세대 증가로 인한 고독의 4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나아가 노인 우울증과 노인 자살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노인들의 심리적 문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통념상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우리 문화는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등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여 영적안녕감과 죽음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을 내면화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죽음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남아있는 미래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또한 본 연구가 죽음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족이나 이웃의 이해 증진을 모색하여 열린 마음으로 죽음을 대면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학술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노년기 영적 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영적안녕감이 죽음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노년기 죽음 준비도가 죽음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노년기 내세관이 죽음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는 어떠한가?
- 넷째,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등 3가지 변수가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통제 후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변인이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이란 절대자를 포함한 자신과 관련된 모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다[1].

다시 말하면, 영적 안녕감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존재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영성은 종교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경우에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조화된 삶을 통해 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종교인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영적 안녕상태와 종교인의 경우 하나님 또는 신앙과 경외의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영적 안녕을 포함한다.

영성의 초월적 관점은 노인의 노화과정 변화에 대해 사고하게 하고, 인생 후기의 지혜와 삶의 만족으로 이끌고, 신체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관여하게 한다고 한다. 노인은 영성을 통해 초월적 존재 또는 조상 또는 신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뚜렷하게 가짐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삶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현재 자기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함으로

미래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까지 찾을 수 있다[27].

이렇듯 노인에게 있어 영적 차원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경험할 때 보상작용의 기전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적인 안녕감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건강이 증진된다는 보고도 있다[28].

2. 죽음 준비도

죽음은 인간의 삶과 표리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끝맺는 방식은 곧바로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보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보다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내일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가정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죽음준비가 바로 삶의 교육이다.

오진탁(2004)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현상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다르다. 또한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잘 준비 하였는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란 복 있는 죽음으로 이해되었으며,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과 준비된 죽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안함, 가족과의 좋은 관계,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한 준비 정도의 깊이와 넓이(유언, 장례준비)등이다.

좋은 죽음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삶에서 충실히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듯 죽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의 의미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내세관

내세관이란 기독교의 내세관 또는 불교의 윤회관의 믿음은 사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제한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삶을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내세에 대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고통의 의미를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다[3]. 불교에서는 정진 수련의 깊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내세관이나 윤회관은 살아있는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과정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이므로 극도의 긴장을 야기하는 위기이고 불안일 수도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검토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유도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여 현재 삶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15].

4.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조직화되고 지속되는 일련의 신념과 감정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 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중대하면서도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삶의 현재 모습과 관련이 깊다. 즉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이라고 금기시하기도 한다 [30].

노인에게 죽음은 생애주기의 마지막 도전이므로, 커다란 인생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죽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노인이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노년기는 자신이 지내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시기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며 과거의 경험적인 삶과 그

의미를 재평가하여 긍정적 자아 통합감 또는 절망감을 체험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표집 대상으로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문 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 항을 확정 하였다. 지역별로 10개의 읍면동 행정 구역 분포에 따라 해당지역별로 10 - 20표본 규모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 협조를 구하여 기관과 설문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5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설문지 160부중 답변이 부실하거나 훼손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53부만을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2.1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노년기 영적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노년기 죽음준비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년기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등 3가지 변수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 인구사회학적 변인 통제 후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2.2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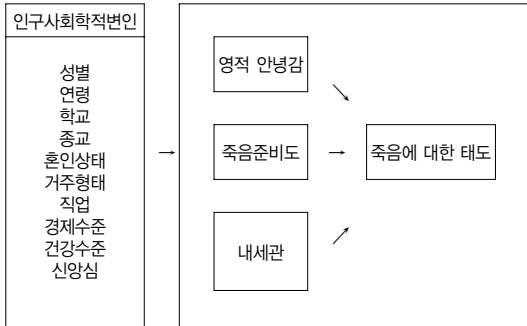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즉, 인구사회학적 일반적인 변인과 영적 안녕감, 죽음준비도, 내세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하였다.

3. 연구도구

3.1 영적 안녕감 척도

영적 안녕감 척도는 원칙도인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Spiritual Well-Being Scale(SBWS)를 개발하고, 최상순(1990)과 강정호(1996)가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11문항이다. Likert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 문항의 채점체계는 ‘매우 그렇다’ 5점, ‘조금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모든 척도를 채점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976으로 나타났다.

3.2 죽음 준비도 척도

죽음준비 척도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실제적 준비 정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윤희옥(2004), 김미순(2006), 황지원(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유산, 유언, 제사 등 형식적 의례준비와 관련된 문항 3개, 수의, 영정사진, 장지 등 행위적 준비태도와 관련된 문항 4개, 총 7개의 문항을 사용하

였다. Likert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준비도와 의례적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866으로 나타났다.

3.3 내세관 척도

내세관에 대한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은 이누미야요시우키(2002), 윤희옥(2004), 김미순(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종 9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내세관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928로 나타났다.

3.4 죽음에 대한 태도 척도

죽음에 대한 측정도구는 Thorson & Powell(1998)이 개발한 Death Orientation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부정적인 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915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개념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 직각 회전 방식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둘째,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에 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 대상자들의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

영감이 죽음 준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 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에서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 및 도구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설문항의 신뢰도 검증

설문지에 나타난 영적 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의 태도에 대한 변인별 개념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설문항의 변인별 개념 신뢰도

독립변인	Cronbach's α	항목 수
영적 안녕감	.976	11
죽음준비도	.866	7
내세관	.928	9
죽음에 대한 태도	.915	15

즉, 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alpha = .866$ 에서 .976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53)

구분		빈도	백분비(%)
성별	남성	57	37.3%
	여성	96	62.7%
연령	65세 이상	38	24.9%
	70~74세	16	10.5%
	75~79세	50	32.7%
	80세 이상	49	32.0%
	무학	39	25.5%
최종 학력	초졸	52	34.0%
	중졸	30	19.6%
	고졸	25	16.3%
	전문대·대학졸	7	4.6%

종교	기독교	63	41.2%
	불교	29	19.0%
	천주교	27	17.6%
	유교	2	1.3%
	무교	31	20.3%
	기타	1	0.7%
종교 기간	1년 미만	39	25.5%
	1년 이상~ 5년 미만	11	7.2%
	5년 이상~ 10년 미만	14	9.2%
	10년 이상~30년 미만	32	20.9%
신앙심	30년 이상	57	37.3%
	깊지 못하다	81	52.9%
	보통이다	28	18.3%
혼인	깊은 편이다	44	28.8%
	미혼	5	3.3%
	기혼(동거)	66	43.1%
가족 형태	이혼 및 별거, 사별	82	53.6%
	혼자서 거주	58	37.9%
	부부만 동거	52	34.0%
	미혼자녀와 동거	9	5.9%
	결혼한 아들과 동거	21	13.7%
	결혼한 딸과 동거	5	3.3%
	기타	8	5.2%
건강	건강한 편이다	60	39.2%
	보통이다	34	22.2%
	건강이 좋지 않다	59	38.6%
경제 수준	좋은 편이다	10	6.5%
	보통이다	87	56.9%
	나쁜 편이다	56	36.6%
직업	사무직	58	37.9%
	자영업	22	14.4%
	생산서비스직	73	47.7%
합계		153	100%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37.3%, 여성이 62.7%로 여성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이 24.9%에 달하였으며, '70·79'세가 43.2%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32%에 달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비교적 고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졸이 34.0%,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41.2%, 종교기간은 30년 이상이 37.3%, 신앙상태는 "깊지 못하다"가 52.9%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가족 형태별로는 "혼자서 거주"가 37.9%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39.2%가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2.2%,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6%로 나타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 '좋은 편이다'가 6.5%, '보통이다'가 56.9%로 나타났으며, 36.6%는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3. 연구 개념들(독립변인)의 기술통계

연구 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 노인들의 죽음 관련 현재의 의식이나 생각을 연구 개념의 기술적 통계로 평균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연구 개념들(독립변인) 사이의 기술적 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영적 안녕감	153	1.00	5.00	3.28	1.37
죽음준비도	153	1.00	5.00	3.14	1.14
내세관	153	1.00	5.00	3.19	1.18
죽음에 대한 태도	153	.93	4.67	2.86	.97

영적 안녕감이 3.28±1.37 점, 죽음준비도가 3.14±1.14 점, 내세관이 3.19±1.18 점, 죽음에 대한 태도가 2.86±.97 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의 연구개념 관련 평균 수준을 살펴볼 때, 영적 안녕감이 가장 높고, 내세관이 두 번째로 높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4. 연구 개념들(독립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그리고 영적안녕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연구 개념들(독립변인) 사이의 상관분석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
내세관	1			
죽음준비도	.382 (**)	1		
영적 안녕 감	.760 (**)	.339 (**)	1	
죽음에 대한 태도	.250 (**)	.495 (**)	.316 (**)	1

즉 모든 연구 개념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사이에는 (r=0.382)로 상관크기가 나

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세관과 영적 안녕감 사이에는 (r=0.760)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r=0.250)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죽음준비도와 영적 안녕감 사이에는 (r=0.339)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죽음준비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r=0.495)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적 안녕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r=0.316)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식은 (R²=.100, F=16.785, p<.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독립변수별로 보면 영적 안녕감(β=.316, p<.001)이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영적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5.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29	.194		10.965	0.000
영적 안녕감	.224	.055	.316	4.097	.000***

R² =.100, F=16.785, p=.000***

*** p(0.001 (종속변인: 죽음에 대한 태도)

6. 죽음준비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죽음준비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245$, $F=34.408$, $p<.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독립변수별로 보면 죽음준비도($\beta=.495$, $p<.001$)가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죽음준비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도 채택 되었다.

표 6. 죽음준비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457	.264		5.527	0.000
죽음준비도	.463	.079	.495	5.866	.000***

$R^2 = .245$, $F=34.408$, $p=.000$ ***

*** $p(0.001)$ [종속변인: 죽음에 대한 태도]

7.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063$, $F=10.076$, $p<.01$)로 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립변수별로 보면 내세관($\beta=.250$, $p<.01$)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도 역시 채택 되었다.

표 7.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05	.221		9.984	0.000
내세관	.206	.065	.250	3.174	.002**

$R^2 = .063$, $F=10.076$, $p=.002$ **

*** $p(0.001)$, ** $p(0.01)$ [종속변인: 죽음에 대한 태도]

8.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3가지 변수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

영적 안녕감, 죽음 준비도, 내세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287$, $F=13.986$, $p<.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독립변수별로 보면 죽음준비도($\beta=.440$, $p<.001$), 영적 안녕감($\beta=.273$, $p<.05$)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순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내세관은 다른 두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등 3가지 변수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4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232	.297		4.145	0.000		
내세관	-.086	.107	-.099	-0.809	.421	.458	2.185
죽음준비도	.412	.084	.440	4.890	.000***	.846	1.183
영적 안녕감	.204	.090	.273	2.273	.025*	.474	2.109

$R^2 = .287$, $F=13.986$, $p=.000$ ***

*** $p(0.001)$, * $p(0.05)$ [종속변인: 죽음에 대한 태도]

9.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한 영적 안녕감, 죽음준비도, 내세관 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한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1 단계에서 직업, 신앙심, 가족형태, 건강상태, 혼인상태,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종교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R^2=.169$, $F=1.771$,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 통제 후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3.270	1.119		2.921	0.004		
성별더미	.128	.242	.058	0.529	.598	.713	1.403
연령	.130	.089	.172	1.457	.148	.619	1.616
학력	-.080	.107	-.087	-0.745	.458	.636	1.572
종교더미	.061	.079	.088	0.766	.446	.652	1.534
종교기간	-.143	.101	-.222	-1.415	.160	.352	2.841
신앙심	.226	.187	.183	1.210	.229	.379	2.638
환상더미	.091	.191	.049	0.477	.635	.833	1.201
가족향더미	.088	.066	.128	1.340	.183	.948	1.055
건강상태	-.036	.127	-.029	-0.281	.780	.824	1.213
경제수준	-.434	.172	-.252	-2.530	.013*	.870	1.150
직업더미	-.096	.167	-.063	-0.573	.568	.715	1.398
$R^2 = .169$, $F=1.771$, $p=.070$							
(상수)	1.400	1.061		1.320	0.190		
성별더미	.007	.231	.003	0.029	.977	.601	1.665
연령	.062	.081	.082	0.766	.446	.582	1.719
학력	-.003	.095	-.003	-0.030	.977	.617	1.620
종교더미	.035	.073	.051	0.483	.630	.599	1.669
종교기간	-.174	.089	-.269	-1.949	.054	.351	2.852
신앙심	.046	.168	.037	0.275	.784	.359	2.782
환상더미	.131	.170	.070	0.775	.440	.811	1.233
가족향더미	.034	.059	.049	0.576	.566	.906	1.104
건강상태	.018	.114	.015	0.160	.874	.785	1.274
경제수준	-.264	.154	-.153	-1.714	.090	.834	1.199
직업더미	.020	.148	.014	0.138	.890	.698	1.433
내세관	-.039	.111	-.045	-0.352	.726	.408	2.451
죽음준비도	.372	.093	.398	4.015	.000***	.680	1.470
영적안녕감	.227	.100	.304	2.258	.026*	.368	2.716
$R^2 = .379$, $F=4.053$, $p=.000$ ***							

*** p(0.001), ** p(0.01), * p(0.05)

그러나 경제수준에서($\beta=-.252$, $p<.05$)만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죽음준비도, 내세관, 영적 안녕감을 추가한 독립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379$, $F=4.053$, $p<.001$)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죽음준비도($\beta=.398$, $p<.001$), 영적 안녕감($\beta=.304$, $p<.05$)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죽음준비도와 영적 안녕감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포함 후 내세관, 죽음준비도, 영적 안녕감 변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5는 경제적 수준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죽음준비도와 영적 안녕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일부만 가설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논 의

죽음 불안은 죽음의 과정이나 죽음 후에 발생할 일에 관해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두려움 또는 염려의 감정이 동반되는 비이성적으로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아직까지는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노인층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준비 태도의 형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의 죽음 관련 현재의 의식이나 생각을 연구 개념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별로 보면 영적 안녕감($\beta=.316$, $p<.001$)이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이에 비해 임동현(2014)과 오경환(2007)은 노인의 영적 안녕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적 영적 안녕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영적안녕감이 죽음의 태도에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실존적 안녕감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김미나(2015)는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에서 우울은 영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계가 있었고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죽음준비도($\beta=.495, p<.001$)가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동현(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죽음의 준비도에 대하여 시설 거주자와 경로당 이용자가 비교적 좋은 인식과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은 시설 거주자와 복지관 이용자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각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변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죽음을 많이 접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내세관은 종교에 따라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세관, 영적 안녕감의 경우 죽음의 태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10-12]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죽음 준비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크게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양숙 등(2013)은 입원 암환자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서 심리적 준비정도가 높았고 죽음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전영기(2000)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노인이 44.7%, 준비하고 있는 노인이 31.9%, 반반정도가 23.4%로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예중(2002)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0%가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60%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을 회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수용과 거부라는 양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과 죽음 준비도에 따른 죽음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해 보인다. 유희옥(2004)에서도 장례절차 및 제사에 관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예가 21.5%, 아니오가 78.5%로 죽음준비가 적음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죽음준비도가 상, 중, 하에 따라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상,

중, 하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 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예중(2002)과 권양숙 등(2013)은 본 연구결과와 죽음준비도가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성을 종교와 비종교를 포괄하여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순수 자연과 연결되어진 영성이고, 둘째는 종교로 연결되어진 영성이며, 셋째는 신념 사건감정 등의 심리학적 구성주의적 관점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관계 맺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였다[24]. 이러한 영성의 보유 결과는 “내적 평화와 기쁨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성취감, 내적 강인함 및 건강이다” 라고 하고 있다[14][24]. 이러한 영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 임동현(2014)은 영적 안녕감은 노인의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영적 안녕감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영적 안녕감이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죽음 불안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부모를 앞선 자녀의 죽음,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일 때 좋은 죽음이라고 보고되었다[28]. 이렇게 죽음이 아무리 노인들에게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노년기의 발달과업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태도와 대처 방안은 노년기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죽음과 관련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입원 암환자의 죽음 준비와 죽음불안에서 연구 대상자의 죽음준비 정도는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정도가 가장 높았다[21].

본 연구는 내세관과 영적 안녕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집중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며 대상자가 적었다는데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보다 많은 사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심층면접법을 통한 질적연구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노년기에 있어서 삶에 대한 긍정은 내세에 대한 견해, 정신적 영적 존재의 지속성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자세로 맞이할 때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유추해 해석 해 본다면 이러한 죽음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고 노년기 삶을 긍정적 방향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임동현, 노인의 영적안녕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실제적 안녕 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 출판사, 2005.
- [3] 유희옥, 중 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 내세관 죽음 준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C. Becker, "Death education in america reasons, Levels", contents, 세 계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pp.20-35, 2004.
- [5] J. A. Shelly,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3rd ed., Downers Grove: InterVasity Press, 1988.
- [6] 김영혜, 권봉숙, 남혜경, 오상은, 이영은, 이지원 등, *아동간호학 총론*, 개정중보판, 현문사, 2006.
- [7] J. E. Thomson, "The Place of Spiritual Well-Being in Hospice Patient's Overall Quality of Life," *Hospice Journal*, Vol.15, No.2, pp.13-27, 2002.
- [8] 김선화, 죽음 준비교육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9] 윤서희, 노인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사례 탐색과 활성화 방안, 서울 지역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박지선, 노인의 고독감, 영적 안녕과 삶의 질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1] 임미숙, 노인의 건강상태, 우울 및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최은진, 노인의 우울, 자아 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3] 오경환,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서울시 마포구를 사례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4] 이누미야 요시유키, 사생관 척도 개발 및 그 하위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내세관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15] 김미순, 내세관과 죽음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6] 황지원, 노인의 자아 존중감, 죽음준비도, 내세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7] P. E. Paloutzian and C. W. Ellison, *Loneliness, 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2.
- [18] 최상순, 동일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1990.
- [19] 강정호, 암환자의 영적 안녕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0] J. A. Thorson and F. C. Powell,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4, No.5, pp.691-701, 1988.
- [21] 권향숙, 서인선, 김현경, "입원 암환자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 No.9, pp.334-342, 2013.
- [22] 전영기,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이예종, 노인의 죽음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4] R. N. Butler and M. I. Lewis, *Aging &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social and biomedical approaches*, St. Louis: Mosby, 1982.
- [25] 남기민, 박현주, “노인의 종교 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49, pp.405-428. 2010.
- [26] 김나미,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2, pp.256-260, 2015.
- [27] 장인순, “일부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영적안녕,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pp.91-98, 2004.
- [28] 최순인, *입원노인환자의 영적안녕과 우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29]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청림출판사, 2010.
- [30] 박형규,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저 자 소 개

김 혜 숙(Hye-Suk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